"대통령 할아버지 북한산 살려주세요"

◇범불교도대회에서는 북한산에 순번제로 상주하며 송추현장을 수호할 북한산알리기 환경수호대가 발족됐다.

◇한 비구니스님이 대회현장에서 혈서를 쓰며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산 파괴규탄 범불교도대회 주변

비구니스님 6명 '수행환경수호' 혈서
오색 딱다구리 등 위로 운판 봉정식 봉행

정대 총무원장의 결단 촉구

○…6월 26일 조계사에서 열린 범불교도대회에서 회룡사 비구니 능진스님 등 6명이 갑자기 혈서를 쓰며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자 마이크를 잡은 한 비구니 스님은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나서야 합니다. 수행정진 도량 수호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북한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범불교도대회에는 본래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원장이 참석치 않아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대독했다.

'환경수호대' 결성, 북한산지키기

○…범불교도대회 식전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노래패 '예쁜 아이들'은 환경보호공연에 이어 촉구문을 통해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북한산을 찾을 때도 오늘처럼 문화재들을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아이들'이 '대통령 할아버지 북한산의 친구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자 일부 참가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운판 송추 철마선원으로 이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색딱따구리 등 북한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위로하는 운판 봉정식이 봉행됐다. 양평 사나사 주지 화암스님의 집전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이 운판에 청수와 팥을 뿌리고 타종했다. 이 운판은 송추 5공사현장에 세워진 철마선원으로 이운됐다.

LG제품 불매운동 대대적으로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인 탤런트 김용숙씨와 가수 김흥국씨는 불자를 대표하여 북한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과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LG그룹 제품의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김흥국씨와 김용숙씨가 '2000만 불자는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 기업 LG그룹의 모든 제품 구입을 거부한다' '비구니 수행자를 폭행하고도 일체의 사과 한마디 없는 LG그룹의 모든 제품 구입을 거부한다'고 외치자, 참가 대중은 구호를 따라 외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전국돌며 환경파괴 고발키로

○…범불교도대회 후 실천행사에서 '북한산 환경파괴 고발 차량'이 인사동을 통과하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고발차량에는 LG건설이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에 벌목한 나무와 환경작가 최병수씨의 생명살림 작품을 함께 실어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렸다. '북한산 환경파괴 차량'은 전국을 돌며 북한산 환경파괴를 알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마곡사문제 진상조사

대전 34개 신행단체, 총무원에 재선거 요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6월 25일 종무회의에서 "마곡사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라"고 호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마곡사 제22대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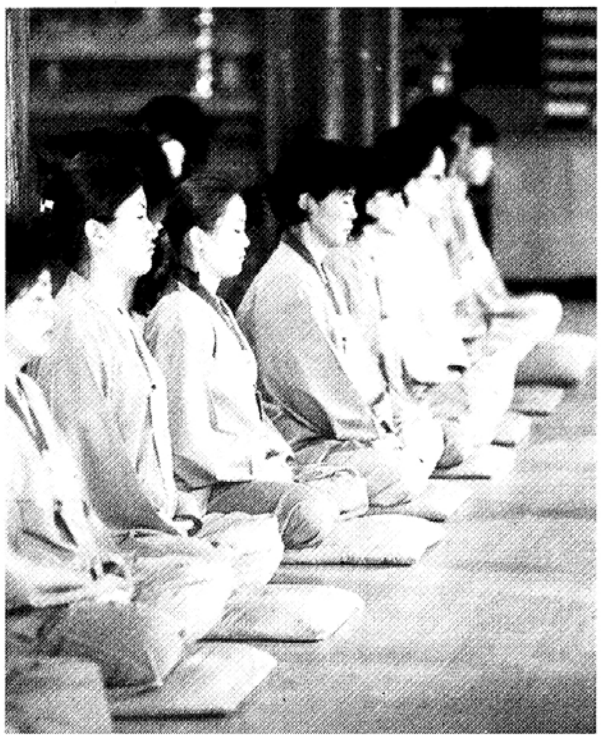
대전충청포교사단 등 대전지역 34개 신행단체는 13일 '진각스님을 마곡사 주지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 신행단체는 성명서에서 △음란한 행실 △동학사 불법 뇌물수수 △허위문서 작성 △ 수행이력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해달라고 조계종 총무원에 요구했다.

주지후보 선거에서 10표 차로 진각스님에게 패한 장곡스님(갑사 주지)도 14일 조계종 중앙종회에 "진각스님은 본사주지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마곡사는 6월 18일 '진각스님을 마곡사 주지로 모실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대전지역 34개 신행단체장에게 '사실 확인 및 협조의뢰(사법기관 고발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마곡사는 주지명의의 공문을 통해 "34개 신행단체는 성명서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6월25일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간주해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마곡사 주지 임명장 수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곡사 주지선거전 주지자격 심사 때 진각스님 적격 판정을 내린바 있다. 김원우 기자



막오른 여름수련회 6월 25일 해인사 수련회를 시작으로 사찰 여름수련회의 막이 올랐다. 여름수련회는 8월 31일까지 전국 60여 사찰에서 열린다. 사찰 여름수련회는 해마다 신청인원이 넘치는 등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해인사 올 여름수련회에서 좌선하고 있는 수련생들. 해인사=고영배 기자

금산사·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과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7월 13~14일 김제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 및 선운사 본말사 신도임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100여명의 신도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연수회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 교수가 '시대가 요구하는 신도임원의 상'을, 김응철 중앙승가대(포교사회학) 교수가 '신도회 활성화에 대해'를,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신도회 조직운영관리에 대해'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김재경 기자

중증장애인 자활시설
어울림터 개원

독실한 불자들의 원력으로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작업활동센터가 제주도내 최초로 개원됐다. 춘강 사회복지법인(이사장 이동한)은 1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를 개원했다.

어울림터는 지상 90여평의 단층건물로 내부에 쉼터와 간이수공업 시설을 갖추고 1~3급 중증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게 된다. 기숙사, 편의시설 등 미비한 시설은 향후 추가 건립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안암학사' 대책위 구성키로

종단·학교·학인 등 대표자로, 실무 작업착수

학교법인 승가학원은 6월24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60차 이사회를 열고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안암학사 문제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책위원회는 종단, 학교당국, 학교법인, 학인, 동문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안암학사는 지난해 11월 고시원으로 임대됐으나,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성북구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이와 함께 시정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상반기에 강제이행금 8천여만원과 9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현재 안암학사는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도시계획법 위반,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종교환경회의, 종교인 대화마당

'연관과 조화위한 밥과 생명' 주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4·5일 양일간 서울 우이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에서 '제2회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대화마당'을 개최한다.

'연관과 조화를 위한 밥과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대화마당 첫째 날에는 이어령 교수(이화여대)의 '밥과 생명, 조화로운 세상' 기조강연에 이어 이병인 교수(밀양대)가 '발우공양정신과 생명존중사상', 소설가 박완서씨가 '밥과 생명, 영성의 삶', 안상남 목사(여성교회)가 '생명밥상의 실천과 종교인의 삶'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남동우 기자

전국군법당 천도법회

국군불교총신도회·군불교위

6월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발발 52주년을 맞아 호국원광사를 비롯한 전국의 군법당과 부산 내원정사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국군신도회)와 군불교위원회가 6월23일 국방부 호국원광사와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는 건군이후 사망한 일체 장병영가를 비롯해 월남파병 전몰장병 영가, 6·25 참전 UN군 전몰장병 영가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호국영령 청혼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영가위패를 국방부 취타대와 의장대의 선도로 호국원광사로 이운,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국군신도회는 6월을 '호국 영령 및 순국선열에게 기도하는 달'로 설정해 육·해·공군 부대별로 천도의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도 6월25일 만불전에서 제22회 육·해·공군 전몰장병 순국선열 순직경관 호국영령 및 선망부모 천도 49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1천명이 참석한 이날 회향법회는 내원정사 주지 정련스님의 영가천도 기도로 시작되어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이날 법회에서 고산스님은 "지금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그것이 곧 조상과 후손들을 그대로 건지는 천도의식과 같다"고 법문했다. 박봉영 기자

KBS VJ 특공대, SBS 호기심 천국에 출연한

범운 선생의 최면 특강

최면 전생요법으로 전생의 당신을 만나 보십시오

강의 내용

1) 원격최면
2) 제령최면
3) 전생최면

◈ 강의시간 : 주 3시간 3개월 과정
◈ 강의요일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교 육 비 : 최면 입문과정 10만원
최면 전문가 과정 100만원

문의: 051)806-8500, 817-6156
동방최면전생연구소

속편안한세상

부건 속편 차(茶)

위 속편 茶는 약 6-7년전 산에서 수행하던 선도인(仙道人)의 비법으로 개발된 신비한 효험이 있는 차 입니다. 산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스스로 약초를 찾아서 질병을 다스리며 때로는 산에서 만난 속가의 사람들에게 약초나 약을 보시하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 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차는 수행하는 도인이 깊은 명상에서 찾은 비법인 만큼 그 효능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입니다.

- 산에서 산인(山人)이 개발한 차입니다.
- 일주일만 드셔도 속이 편안해집니다.
-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만들어서 효능도 좋습니다.
- 속편 차는 속이 불편하신 분만 드시라고 만들었습니다.
- 약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속편 차를 드신 후 살맛 난다고 하십니다.
- 한번 드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 만드는 비법이 특허출원 중입니다. [특허출원 번호 : 10-2002-0018148]
- 연락 주시면 소상히 알려 드립니다.

합자회사 부건식품
전화 : 041-674-6955,6966 / 017-724-3355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